



## 강원 영동지부 축산물직판장 개장

### — 양질의 돼지고기 공급으로 소비자와 상호 신뢰구축 —

— 홍보부 —

강원 영동지부(지부장 : 김경수)는 지난 9월 5일 오전 11시 황일남 강릉축협조합장과 조천규 양돈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인사들과 지부회원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직판장 개장식을 가졌다.

강릉시 포남동으로 새로 이전한 지부사무실 1층에 마련된 영동지부 축산물직판장은 20평규모의 매장에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한우고기, 닭고기 및 각종 육가공제품 등 축산물 일체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김경수지부장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로 직접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산자들에게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려는 의욕을 고취하고, 반면에 소비자는 싼값에 양질의 축산물을 구입, 상호신뢰를 구축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한 『적정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수출잔여육 유통이 60% 이상을 차지, 유통마진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 지역의 축산물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 직판장을 개설하게 됐다고 그 동기를 밝혔다.

회원들이 1인당 2백만원꼴로 출자, 자부담 2천만원, 은행대출 4천만원 등 총6천만원을 들여 개설한 영동지부 축산물 직판장은 2평반짜리 냉장고와 육절기, 골절기 등 최신 정육기기와 쇼케이스를 마련, 대단위 공급체계를 갖추고 회원들의 돼지를 돌아가면서 납품토록 하고 있다.

직원 3명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 강원영동지부 직판장의 돼지 판매가격은 100g당 등심 450원, 삼겹살 480원, 전·후지 각 320원이며, 이날 판매량은 돼지 6두 소2/3두로 매상은 각각 1백20만원과 1백30만원을 올렸다고 한다.

강원 영동지부는 직판장운영의 목표를 지역 돼지고기 가격안정에 두고, 특히 「양돈협회 돼지는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는 한편, 당분간 지부의 전력을 직판장운영에 투입하여 소매점 측의 가격 현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원 영동지부 주소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46-16

▲전화 : (0391)2-7003